미8군 본사 공보실 발행 한글판
비관변 미국방성 공인 격주간지

카투사 격주간

1976년 6월 1일 창간 THE KATUSA, A BI-WEEKLY PUBLICATION 2005년 9월 첫 번째 30권 13호

이번 호에는...

2면 군관련 소식
카투사 16명 미 EIB 명예합격
한국군지원단장 KTA 방문

3면 군관련 소식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
한마디

4, 5면 부대 탐방
168의무대대 D중대

6면 영어교육 연재
Winglish.com

7면 카투사 기고문
부가티

8면 안녕하세요
이재은

부대 탐방 후보지 신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찾습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 한달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10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부대탐방은 7명이상의 카투사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대를 다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국회의원의 미군기지 방문

카투사 신문 심영식
한국군지원단장 이용일 대령과 열린우리당 국회 국방위 소속 임종인 의원이 단본부 회의실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

"세계 유일의 카투사 제도와 미군과 함께 일하는 한국군의 생활을 알아보러 왔습니다."

용산 미군 기지에 위치한 미 8군 한국군 지원단본부에 지난 9일 열린우리당 국회 국방위 소속 안영근 의원과 임종인 의원이 방문 하였다.

오전에 부대를 방문한 두 의원은 한국군 지원단본부의 회의실에서 보좌관들과 함께 한국군 지원단장 이용일 대령의 부대현황보고를 경청하였다. 이대령은 카투사 제도의 성립배경, 카투사 지원 현황, 관리체계, 그리고 미군들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임의원은 "카투사제도가 생긴 지 50년이 넘었다. 카투사들이 미군 부대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애로사항은 어떤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왔다"며 "카투사 제도는 구두합의에 의해 지원되어 온 제도이다. 이 제도가 필요하다면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후에 지원되어야 하며 불법이라면 지원병력들은 철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 일정으로 두 의원과 이대령 및 군 간부들은 주한미군 공보처, 훈련처, 위병소 등의 카투사 근무지역을 둘러보며 카투사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미군들의 한국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지 동료 미군들에게서 전해 들었다. 또 2인 1실의 막사를 둘러본 임의원과 안의원은 깨끗한 막사 환경과 개인침대, 책상, 옷장, 세탁기, 세면대 등이 구비되어 있는 것에 놀라며 한국군과 많은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이날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임의원은 카투사들과 함께 단본부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단한 자기 소개와 간담회의 목적을 소개한 임의원은 봉급, 부대 내 휴대폰/인터넷 사용, 그리고 구타 및 가혹행위 등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그는 특히 카투사로서의 장점과 단점에 관심을 보였고, 한국군과의 차이와 한국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하급자간의 군기 문제등을 거론하며 카투사들의 의견을 물었다. 임의원은 간담회에서 한국군 사병의 월급인상, 군 복무기간 단축, 주거 시설 개선, 사병들 사이에 존대말 사용, 휴대폰 사용 승인 등을 이야기 하며 카투사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1시간 40분 가량의 간담회가 끝난 후 한국군 지원단본부 간부들, 카투사와 기념 사진 촬영을 마친 임의원은 "여러분들이 한미 동맹관계 진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고 하며 말을 이었다.

"카투사가 미군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오히려 미군을 도와주고 있으니 자존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권리는 확실히 찾기를 바랍니다." ■

일병 심영식

인천상륙작전 55주년 기념식 개최

인천상륙작전 제 55주년을 맞아 9월 15일 오전,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에서는 기념식이 있었다.

한반도에서 적을 몰아내어 조기에 전쟁을 종결한다는 더글라스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의 계획과 함께 작전명 '크로마이트'로 불린 인천상륙작전은 한국전쟁 당시, 수세에 몰린 한미 연합군이 대반격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기념 행사는 한반도의 자유수호를 위해 헌신한 국내외 참전용사 및 영령들의 희생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매년 행해지고 있다. 이날 행사에 앞서 해병대 사령관 김명균 중장, 주한미해병대 사령관 듀에인 티슨 소장,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한 초청인사들은 상륙작전당시 치열한 교전이 시작되었던 중구 월미도 앞바다에서 산화한 병사들의 넋을 달래기 위한 헌화식을 하였다. 또한 일행은 자유공원의 맥아더 장군 기념 동상을 방문, 그의 업적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카투사 신문 김도호
자유공원의 맥아더 장군 동상 앞에서 묵념하는 행사 참석자들.

기념식은 국기에 대한 경례 및 애국가 제창을 시작으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당시 전황보고, 참전용사 소개 및 감사장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진 기념사에서 안시장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그날의 감동과 역사의 주인공인 참전용사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참전용사들에게 새삼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함과 아울러 조국과 민족을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국군과 이역만리 인천에서 유명을 달리한 유엔군 장병의 명복을 비는 바"라고 말했다. 또 그는 최근 붉어진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논란에 관하여 "265만 인천시민의 사랑을 받아온 맥아더 동상이 철거되거나 이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못박았다.

이어진 축사에서 티슨 소장은 모든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소감을 밝혔다.

2면으로 계속...

인천상륙작전 55주년 기념식 개최

1면에 이어서...

"한국전쟁은 한미 양국간 훌륭한 동맹관계가 맺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반 세기 동안 우리는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유지되어온 한미 군사동맹 및 친선관계를 증진시켜 오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과거 그 어느때 보다도 굳건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미 양국 장병들이 55년 전 인천상륙작전 참전용사들의 위대한 업적과 명성을 계속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

상병 김도호

카투사 16명 미 EIB 합격명예

최정예 미 육군 보병을 선발하는 EIB(Expert Infantry Badge, 우수 보병 휘장) 테스트에서 카투사 16명이 합격, 한국군의 우수성과 한미 연합 전투력 극대화에 크게 기여했다.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탱고 경비중대 지원대장 최종준(38) 상사 등 23명은 최근 2UEx 2-9보병대대가 주관한 테스트에 참가, 16명이 합격하는 뛰어난 성적으로 미군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엄격한 선발 과정으로 해마다 실시하는 EIB 테스트는 미 육군이 1943년부터 보병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응급처치, 화생방, 사격술, 기초 각개전술, 독도법 등 18개 과목, 44개 세부 항목을 측정한다.

기준도 엄격해 단 하나의 항목에서 두 번 이상 재평가를 받게 되면 곧바로 탈락하게 된다.

자격 요건도 만만치 않아 ▲PT 측정 ▲사격 40발 중 36발 이상 명중 ▲나침반, 인공위성 항법장치(GPS) 주야간 방향 탐지 ▲20㎏ 무장 행군으로 20㎞ 3시간 내 통과 등 최정예 보병들만이 응시할 수 있다.

제공사진

최정예 미 육군 보병에게 수여하는 EIB를 획득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탱고 경비중대 카투사들.

때문에 평균 합격률은 해마다 30%대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도 25명의 미군 장병 중 단 9명 만이 합격했다. 반면 카투사들은 해마다 미군보다 두 배에 가까운 70% 이상의 합격률을 보여 한미 연합 전투력의 핵심임을 과시하고 있다.

평소 피나는 노력과 훈련으로 최고 명예의 EIB를 획득한 강진석(26) 병장은 "카투사들이 EIB에 도전하는 이유는 미군들이 받고 싶어 하는 가장 영예로운 휘장이기도 하지만 혹독한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자기 발전 계기로 삼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카투사들과 동고동락하며 테스트를 준비한 최대장은 "개인적으로 영광이기도 하지만 언어와 문화적 장애를 극복한 우수한 한국군의 명예를 드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카투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군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으로 한미 연합 전투력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방일보

한국군지원단장 KTA 방문

2사단 공보실

이용일 대령이 카투사 전산 공개 분류를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이 왜 카투사로 오게 되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일 경기도 의정부시 캠프 잭슨에 위치한 카투사 교육대에 한국군 지원단장 이용일 대령이 부임 후 처음으로 교육대를 방문하며 카투사 전산 공개 분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확인하였다.

미 8군 부사관학교와 카투사 교육대의 학교장 프레스톤 밍고 주임원사와의 면담에서 이용일 대령은 "정훈 교육은 중요하며, 이에 매 기수마다 직접 정훈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밍고 주임원사는 "한국군지원단의 지원에 항상 감사한다. 뿐만 아니라 본 교육대의 부소대장으로 있는 한국군 교관들이 있어 든든하다"고 말하며 상호적극지원을 약속하였다.

면담 이후, 이용일 대령은 카투사 교육대장 박상연 상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로는 카투사교육대와 PLDC의 임무 교육계획 및 내용이 포함되었다. 업무 보고 후, 이용일 대령은 캠프 잭슨의 각종 시설물 및 편의 시설을 둘러보며 교육병들이 교육을 받거나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이용일 대령은 카투사 교육대 05-04기 126명의 교육병에게 정훈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는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카투사에게 많은 자유를 주는 것은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규정을 준수하면 더 큰 자유를 얻는 법입니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여러분이 왜 카투사로 오게 되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후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생긴 것이 카투사 제도입니다. 즉, 카투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존재합니다"고 말하며, 교육병들에게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미국은 한국전쟁시에 13만명이 희생하며 우리를 도왔습니다. 이에 2년간 카투사로서 활동하면서 한미 동맹을 곤고히 해주기를 당부합니다"고 말하며 카투사에 대한 기대를 보였다.

그는 이어 진행된 카투사 전산 공개 분류에 대해 완벽하며 공정하기 때문에 교육병들도 모두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하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미 2사단 카투사들에게 "카투사 장병들은 선발된 우수자원들이다. 카투사의 본분에 맞게 최선을 다해줬으면 하며 대한민국 육군으로써의 자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또한 우리는 조국을 위해 존재함을 잊지 말해줬으면 한다"고 말하였다.

현재 카투사 교육대에는 3명의 한국군 교관과 11명의 카투사 장병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우수 카투사 장병 양성에 힘쓰고 있다. ■

2사단 공보실

카투사 신문은 미 육군 규정 360-1에 의해 미8군 사령부 공보실에서 발행되는 한글판 비관변 미국방성 공인 신문으로, 1회 4,000부씩 월 2회 발행되고 있다. 이 신문은 전국의 미 육군 배속 한국군과 주한미군 요원들에게 배부되며 여기에 게재된 견해와 의견은 미국 정부, 국방성, 육군성, 미8군이나 대한민국 육군의 그것은 아니다. 카투사 신문은 격주간지로서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발행된다. 사무실은 용산 미8군 부대내 S2372이며 전화번호는 723-4813이다. 모든 글은 용산구 체신청 직영 우체국 사서함 59호 미8군 본부중대 공보실로 보내면 된다. 전자우편 주소는 eui.jin.choi@korea.army.mil이다.

미8군 사령관
중장 찰스 씨 캠벨
한국군지원단장
대령 이용일
미8군 공보실장
중령 토마스 이 버지나
한국군지원단 정훈과장
중위 이준범
편집장
상병 최의진
기자
상병 김도호
상병 김준식
일병 심영식
일병 이정우

Eighth U.S. Army Commander
Lt. Gen. Charles C. Campbell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r
Lt. Col. Thomas E. Budzyna
Command Information OIC
Capt. Kone C. Faulkner
Editor
Cpl. Choi, Eui-jin
Staff Writers
Cpl. Kim, Do-ho
Cpl. Kim, Joon-sik
Pfc. Shim, Yung-sik
Pfc. Lee, Jung-woo

KATUSA is an unofficial publication authorized by AR 360-1. Editorial content is prepared, edited and provided by the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APO AP 96205-0010. Contents of KATUSA are not necessarily the official views of, or endorsed by, the U.S.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ce, Department of the Army, Eighth U.S. Army, or Republic of Korea Army. KATUSA is an offset publication, printed twice monthly by the Document Automation and Production Service. 4,000 copies are distributed on the 1st and 3rd week of each month. Editorial staff is located in Bldg. S2372, Yongsan Garrison, Seoul, Korea. Office telephone numbers are 723-4813. Items submitted for publications consideration should be sent to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Command Information Division, ATTN: KATUSA NEWS, APO AP 96205-0010. Or use our email address: eui.jin.choi@korea.army.mil. We reserve the right to edit items for brevity, clarity, and news style. Letters to the editor are accepted but must be signed. Names will be withheld by request.

카투사 신문은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카투사 신문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 내의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해 알려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관련 소식 외에도, 전국의 모든 카투사들과 공유하고 싶은 멋진 추억이나 아름다운 이야기, 전하고 싶은 글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전화: DSN 723-4813

E-mail:eui.jin.choi@korea.army.mil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9월 16일 오전부터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귀성객이 몰리면서 '민족 대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추석은 아직 이틀이 남았지만, 17일부터 19일까지 유난히도 짧은 올해 추석 연휴기간으로 인해 가족들과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시민들의 마음은 이미 고향과 가족들에게로 달려가고 있었다.

한편, 이날 서울 중심가는 사람들과 차량의 통행이 뜸해져 모처럼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백화점과 경동시장등 재래시장에는 17일부터 시작될 추석 명절을 준비해 추석 선물과 제수 용품등을 사는 주부들로 붐볐다.

카투사신문 김준식

지난 추석 경복궁 광장에서 조선시대 수문장 교대 의식을 재현하는 행사를 가졌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 첫 날인 17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고 특히 서울, 경기 지방과 충청권에 최대200mm 안팎의 집중 호우가 쏟아져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고, 벼 수확을 앞둔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추석인 18일도 흐린 날씨를 보였지만, 구름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었다.

서울 남산 한옥마을, 서울시청 광장등 전국 각지에서는 전통공연과 민속놀이 행사가 열려 이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부터 어린아이까지 한가위 민속놀이에 흠뻑 빠져들었고, 자주 접하기 어려운 전통공연들이 계속되어 한가위 분위기를 더욱 더 풍성하게 해주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보름달만 같아라'는 옛말처럼 한가위 하면 생각나는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모습들도 여기저기서 눈에 띄었다.

또한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19일 오랜 산고의 고통 끝에 공동 성명 발표라는 합의점을 이끌어 내며 성공적으로 마감된 북핵 6자회담 소식이 전해져 국민들에게 가장 큰 추석 선물이 되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모든 핵 계획을 포기한다는 굉장히 의미있는 성과를 이룩한 이번 6자 회담은 한반도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체제 수립의 발판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한편 추석연휴 마지막날에는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전국의 고속도로가 한때 심한 정체를 빚었으나 당초 우려했던 귀경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잠시나마 부모님을 뵙고 한가위의 정취를 느끼며 보낼 수 있었던 추석 연휴가 모두 끝나고 모두가 일상으로 다시 돌아온 지금, 하루 빨리 명절 휴유증을 극복하고 일상속에서 보름달을 보며 빌었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상병 김준식

카투사 신문 김도호

9월 13일, 미8군 본사에서는 한국군지원단장 이용일 대령의 태풍 카트리나 수해 성금 전달이 있었다. 수해 성금은 3500명의 카투사와 한국군지원단 소속 장교 및 부사관 전체가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마련되었으며, 미8군 참모장 윌리엄 키드 대령의 주선 아래 미국 적십자사로 전달되었다.

Ä«Åõ»ç ÇÑ¸¶µð

대구에서 있었던 Episode

168의무대대 D중대
병장 우희명

제가 술을 즐기는지라 재밌는 에피소드는 다 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웃음). 대구에서 복무하던 중, 한 선임의 누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대원들이 결혼 축하 선물로 축가를 연습하여 부르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전날, 기타를 맡고있던 제가 과음을 하는 바람에 부대원 전체가 리허설도 못하고 무대에 오르게 되었고 기타잭도 못 찾아서 허둥대었습니다.

168의무대대 D중대
상병 성충기

대구에 뜨거운 햇볕 덕분에 고무장갑을 선물 받았습니다. 덥기로 유명한 대구에서, 하필 이번 여름에 밖에서 일을 많이 하여,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민소매티를 입고 밖에 나갈때면 브라운 티의 흔적이 검은 고무장갑을 한 것 같은 효과를 내어 주위의 시선을 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민소매티를 입는 것이 망설여 졌었습니다.

168의무대대 D중대
일병 김성종

오랜만에 받은 패스로 어떻게든 집으로 가고 싶었던 저는 막상 돈은 없어 오랜 고민 끝에 큰 마음을 먹고 무임승차를 결심했습니다. 승객이 많아 보통 표검사를 하지 않는 무궁화호를 타려고 계획했지만 실수로 새마을호를 타버려 결국 표검사를 하게 되었고 무임승차 사실을 들켜 9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벌금낼 돈도 당연히 없었기에 TMO로 착각하고 승차했다고 애원했지만 다음역인 구미에서 쫓겨나 매우 고생했었습니다.

168의무대대 D중대
이병 김현섭

저희 D 중대에서는 2주에 한번씩 대구 시내를 가로지르는 신천으로 가서 천변에서 10킬로 정도의 구보를 합니다. 아침 5시 정도에 부대 밖으로 나가 6시 반쯤 복귀합니다. 일등 상사가 체력이 상당히 좋은데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라 열외되지 않고 따라가려면 항상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야 된답니다. 전입한지 얼마 안되었을 때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거의 쓰러질 정도 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즐기고 있습니다.

지휘관으로 보이는 장교 하나가 적진 앞으로 손을 내뻗으며 '돌격'이라고 목청껏 외치면 수많은 장병들은 우레와 같은함성을 내지르며 그의 뒤를 따른다. 매캐한 연기와 폭음은 사방을 뒤흔들고 비오듯 쏟아지는 총탄은 그들의 목숨을 금방이라도 앗아가버릴 듯 사나운 바람소리를 내지른다. 하지만, 그런것에 아랑곳 하지 않고 전장을 바람처럼 내달리는 이들이 있다. 꺼져가는 전우의 생명의 불씨를 다시 지피기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이들. 그들은 바로 의무병들이다.

비록 직접적인 전투에 가담하지는 않지만, 전우들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들. 이번 을지 포커스 렌즈 훈련동안 대구의 캠프 헨리에서 주둔했었던 미 8 군 본사 및 여러 부대원들의 안전을 성공적으로 지원해 준 그들. 이번호 부대탐방에서는 168의무대대 델타 중대원들을 만나보았다.

'평시에는 강건한 모습으로, 위험이 발생했을 때에는 언제나 그곳에서 부상당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리라'는 구호를 가지고 있는 168 의무대대는 121 국군통합병원, 618 치과 중대 등과 함께 18 의무사령부 산하에 있다. 의무대대는 본부중대,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등의 8 개의 중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캠프 케이시, 캠프 레드 클라우드, 캠프 잭슨 등이 위치한 1 지역대에서부터 캠프 워커, 캠프 캐롤, 캠프 하야리야 등이 소재한 4 지역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전역에 걸친 의료관련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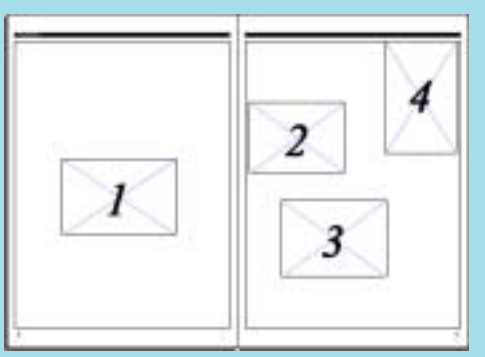
168 의무대대는 1942년에 본부중대로서 미 육군에 편성되었으며, 같은해 10 월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캠프 영에서 창단되었다. 의무대대는 유럽 전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에서 있었던 군사 작전에 참가하기도 했다. 유럽에서의 전반적인 지원을 마치고난 3 년 뒤, 대대는 뉴욕의 캠프 샹크스로 귀환하여 일시적으로 해단하게 된다. 하지만 1958년 12월 25일 재활성화 되어 한국에서 의료 지원을 다시 시작하게 되고, 포트 루이스에서 다시 해단 되기까지 한국에서 약 13년간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해낸다. 1993년 10월 16일, 168 의무대대는 그 규모와 지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다시 한국을 찾게 된다. 그 이후, 지금까지 의무대대는 한반도 전역에서 체계적인 의료 지원을 해오고 있다.

카투사신문 이정우

168 의무대대에는 현재 450명이 넘는 카투사들과 미군 장병들 그리고 민간인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4 개의 의학중대와 3 개의 예방의학파견대에 편성되어 군부대, 혹은 민간 행사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의료시설 및 응급시설의 지원과 더불어 CLS(Combat Lifesaver Course) 등의 의무관련 훈련, CARE(Cancer Awareness Running Event) 등의 의무관련 이벤트의 담당을 수행하고 있다.

카투사들은 이곳, 168 의무대대에 보급병(Unit supply), 행정병(Orderly Room), 의무병(Clinic), 의무 보급병(Medical supply) 그리고 병리 실험 의무병(Lab Technician) 중 하나의 군사 주특기를 가지고 배치받게 된다. 보급병과 행정병은 선임병장과 함께 의무대대의 본부중대에서 근무하며 병원소대 및 예방의학분견대에서 근무하는 카투사들의 전반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있다. 이와 달리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무병, 의무 보급병 그리고 병리 실험 의무병은 환자들의 치료와 의료 지원에 관련된 일련의 일들을 맡고 있다. 의무병은 PCA(Primary Care Area)와 UCA (Urgent Care Area)로 크게 나뉘는데, 전자는 예약한 환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체 정보를 수집하여 일반적 증상과 통증을 기재하는 역할 및 환자의 기존 약물 사용 기록과 과거 의학기록을 조사하는 일을 맡는다. 반면, 후자는 24 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에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 환자들을 위해서 대기하게 된다. 감기 등의 기초적인 질병에서 왠만한 수준의 수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의료 지원을 공급하는 자리이므로 의무병 사이에서는 '메딕의 꽃'으로 불린다. PAD(Patient Administration Department)라 불리는 원무과 의무병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환자와 관련된 행정 일을 담당하고 있다. 그들은 병원 전체의 일정관리부터 진료예약, 예약하지 않은 환자의 당일 수속, 전화 상담 연결, 환자 의무 기록의 유지, 관리, 개정 그리고 121 국군통합병원과의 의무기록 교환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한 일들을 처리한다. 이 외에도 의무 보급병은 여타 의료 물품의 유지 및 보수를 관리하고 병리 실험 의무병은 소변, 대변 그리고 혈액같은 각종 검사를 수행하고 혈청을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한다.

168 의무대대 본부중대소속 선임병장인 우희명 병장은 "병원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언제나 비상사태에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언급하며 "그렇기에 우리들은 다른 카투사들보다 조금 바쁜 하루를 시작한다"고 의무대대 소속 카투사들의 일과를 설명했다. 병원은 통상적으로 8 시에 진료를 시작하기 때문에, 카투사들은 5 시에 기상해서 30분 후에 있을 체력 단련를 준비해야 한다. 보통 1시간 정도 체력 단련시간을 가진뒤에 개인정비를 마치고 7시 45분까지 병원으로 출근하여 16시 45분의 Recall Formation 이 있을때까지 근무하게 된다.



1. 환자에게 연고를 바르고 있는 168 의무대대 델타 중대 응급실(UCA) 허매희 간호사와 의무병 김현섭 이병.
2. 채취한 샘플을 원심분리기를 이용해서 실험하고 있는 168 의무대대 델타 중대 임상병리과 성충기 상병.
3. 보급실에서 의료 기구를 정리하고 있는 168 의무대대 델타 중대 의료물품보급실 손기모 상병.
4. 클리닉 접수데스크에서 예약 전화를 받고 있는 168 의무대대 델타 중대 원무과 조연진 상병.

또 화요일 오전에는 예방정비 점검 및 지원(Preventive Maintenance Checks and Service)을 수행하기 위해서 왜관 소재의 캠프 캐롤로 이동하게 된다.

우 병장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카투사들이 약간 불만스러워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이야기 했다. "하지만 장비의 점검 및 지원은 의무병에게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우들의 건강을 돌본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매주 왜관까지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168 의무대대 델타중대소속 의무병 김성종 일병은 "다른 카투사들과는 달리 우리 중대에는 특별한 체력 단련이 있다"며 특별한 체력 단련 방법들에 관한 설명을 시작했다. "물론 체력 단련 시간에 일반적으로 다른 부대에서도 시행하는 기본 스트레칭,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등도 시행합니다. 하지만 리터 캐리어(Litter carrier)나 파이어 캐리(Fire carry) 그리고 한시간 달리기 같은 특색있는 체력 단련을 더욱 자주 합니다." '리터 캐리어'라 불리는 체력 단련은 환자로 지목된 사람을 들것에 옮겨싣고 목적지까지 전력 질주를 하는 것이다. 이는 전시에 환자들을 신속하게 호송할 수 있는 체력을 의무병에게 길러주려는 의도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수행하고 있는 '파이어 캐리'체력 단련은 2인 1조로 수행하는 '리터 캐리어'와는 달리 환자로 지목된 다른 사람을 한 명이 업은채로 목적지까지 전력 질주 하는 것이다. 한시간 달리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6~8마일 가량을 계속 달리는 체력 단련이다. 대구를 가로지르는 신천 강변을 따라, 한시간 가량 달리기를 하는데 처음 이 체력 단련을 시작했을때에는 긴 코스에 익숙하지 않아서 길을 잃어버린 적도 많았다고 한다.

카투사신문 이정우

카투사신문 이정우

"업무하는 곳이 병원이다 보니 써전스타임때도 특별한 훈련을 많이한다"고 김 일병은 덧붙였다. "이시간에는 심폐소생술과 정맥주사놓는 연습을 주로합니다. 활용도와 중요도가 높은 이 두가지를 집중적으로 연습하여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입니다." 심폐소생술은 환자가 아이인지 아니면 어른인지에 따라 다르게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과제를 달리하여 수행하고 있다. 아이들은 체구가 작기 때문에 왼쪽 팔로 받쳐주면서 'Head tilt, chin lift'의 규칙에 따라 머리를 기울이고 턱을 당겨서 기도를 확보한 후, 입안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공기를 불어 넣는다. 공기를 한번 불어넣은 뒤에는 5회의 심장을 마사지 해주어야 하는데, 아이의 심장은 구조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 혹은 둘로 심장 마사지를 시행해야 된다고 한다. 하지만 어른을 대상으로한 심폐소생술의 경우는 두 손으로 갈비뼈에 무리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압박을 가해야 한다. 어른을 대상으로한 심폐소생술은 공기를 불어넣는것과 심장을 마사지 하는 것을 2:15의 비율로 맞추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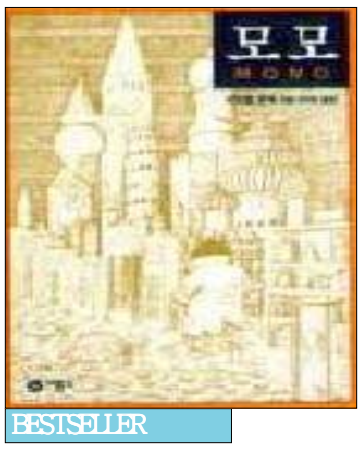
"정맥주사를 놓을때는 팔 상박을 우선 지지대로 묶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설명을 시작한 168 의무대대 델타중대 의무병 김현섭 이병은 "그 후, 약간 돌출되는 부분에 혈관의 크기에 맞는 굵기의 주사바늘로 약물을 주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금은 크게 어려움 없이 정맥주사를 놓을 수 있지만, 제가 처음 전입했을때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신병때는 병원에서 하는 일을 더 빨리 습득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때 제 동기 하나와 함께 정맥주사를 놓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혈관을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우연하게 약물이 주입 되었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 갑자기 주사를 맞은 동기의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더니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도 놀란 나머지 선임 카투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우리들은 제 동기를 극진히 간호 했습니다. 간호의 결과 였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큰일이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농구를 하고있는 제 동기를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168 의무대대는 3개월에 1회 정도 야전 훈련을 나가게 된다. 이때, 그들은 실전에서 자신들이 수행해야 하는 야전 환자 치료에 관한 전반적인 훈련을 수행한다. 그 중에서도 환자 호송에 관한 체계적인 훈련을 거치게 되는데 NBC 상황에서의 환자 호송 및 치료에 관한 훈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168 의무대대 본부중대소속 선임병장 우희명 병장은 "우선적으로 환자에게 마스크를 씌워서 추가적인 오염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말하며 훈련의 과정을 설명했다. "적군이 공격해왔을 때, 생화학 무기 사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는 없습니다. 그에 따른 사상자는 불가피 한 것이죠. 이때 환자들을 얼마나 신속하게 호송하느냐가 그들의 생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간단한 응급처치를 수행한 다음 환자들을 후방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훈련 전반에 걸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카투사신문 이정우

168 의무대대 델타중대 NCOIC인 제임스 멘디에타 하사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카투사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나를 지원해주는 카투사들이 매우 우수하다는 사실에 언제나 감사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카투사들은 병원에서 중요한 존재임을 강조하는 그를 보며 기자는 168의무대대 델타중대소속 카투사들이 한국 육군의 위상을 다시금 드높여주고 있다는 사실에 내심 뿌듯한 마음으로 취재를 마칠 수 있었다. 당장 오늘 밤에라도 싸울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는 이들의 든든한 지원이 있는한, 우리의 국토는 외세로부터 유린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본다. ■

일병 이정우



BESTSELLER

모모

미하엘 엔데 / 비룡소

전세계 40여개 언어로 번역된 독일 작가의 장편. 기적과 신비가 가득찬 상상의 세계로 독자들을 인도하는동화이다. 시간을 훔치는 도둑과 그 도둑이 훔쳐간 시간을 찾아주는 한 소녀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로 모모와 친구들, 회색신사, 거북 카시오페아이 등이 등장한다.

WEBSITE

굿딜 포유

www.gdfy.co.kr

점점 좁아져만 가는 지구촌 시대에 특정 지역, 특정 국가가 가지는 독특한 성격을 감안 하지 않고는 결코, 개인, 기업, 혹은 국가가 성공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굿딜 포유는 자국에서 타국으로 특히 미국으로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생활에 꼭 필요한 유선전화, 휴대전화, 전기, 자동차, 집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들을 최소화 시켜 도움을 주기위한 사이트이다.

Winglish.Com 과 함께하는

English Biz - Whiz

제 12장

Cancer prevention

문화(different cultures)와 인종(different races)이 달라도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지요. 의료 건강 분야(health and medical field)가 그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흡연(smoking), 음주(alcohol) 및 일광(sunlight)에관한 기사를 통해서 상식(common sense)도 넓히고 영어문법도 공부해 보겠습니다.

Smoking: Cigarette (smoking / smoker) is responsible for 85% of lung cancer among (man / men), 75% among women-about 83% overall. Smoking (accounts / accounting) for about 30% of all cancer deaths. Those who (smokes / smoke) two or more packs of cigarettes a day have lung cancer mortality rates 15-25 (times / time) greater than non-smokers.

Alcohol: Oral (cancerous / cancer) and cancers of the larynx, throat, esophagus, and liver (occur /occurs) more frequently among heavy drinkers of (alcohol / alcoholism).

Sunlight: (Almost all / Almost) of the more than 500,000 cases of non-melanoma skin cancer developed each (year / year) in the U.S. are considered to be sun-related. Such (exposure / exposed) is a major factor in the development of melanoma, and the (incidence / incident) increases for those (living / are living) near the equator.

Unlocking difficulties)

is responsible for : ~에 책임이있는

overall : 전체

mortality rates : 사망률

larynx : 후두

throat : 인후

esophagus : 식도

sun-related : 태양관련

해설)

1) Cigarette (smoking / smoker) : '흡연'을 의미하는군요.

2) among (man / men) : among은 3명 이상의 복수에 쓰죠.

3) Smoking (accounts / accounting) for : 주어 smoking은 단수

4) Those who (smokes / smoke) : those who는 ~하는 사람들이므로 복수

5) 15-25 (times / time) : 15~25는 복수

6) Oral (cancerous / cancer) : cancerous는 형용사

7) and liver (occur /occurs) : 동사 occur 앞의 주어는 복수

8) drinkers of (alcohol / alcoholism) : '술'을 의미하는 단어는?

9) (Almost all / Almost) of the more than 500,000 case : almost of는 어색하죠

10) each (year / year) : each는 단수형명사와함께

11) Such (exposure / exposed) : such는 형용사이므로 명사 필요

12) and the (incidence / incident) : 정관사 the뒤에는 명사필요하죠?

13) for those (living / are living) : 관계대명사 + be 동사는 생략가능

cry and scream

우리말에 비슷비슷하지만 의미는 정확히 구별되는 말들이 있지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문장에서 어색한 부분을 골라 보실까요?

1. When they saw Michael Jackson, they got excited and began to cry.

2. When the medics tried to move Sgt. Kim, he shouted in pain.

3. Michael Jordan's fans didn't stop crying out until she left the stage.

4. Surprisingly, though she was angry, she didn't cry.

5. When my kid sister fell down, she began to weep.

6. In this situation, I really don't know whether to cry or laugh.

7. As you know when babies are hungry they always weep.

8. The Union members screamed "We need more money."

cry, shout, scream, cry out, weep 의 뜻을 원어로 보시면:

cry : shout something, the opposite of laugh

scream : make a loud, high and continuous noise

cry out : make a sudden loud noise

shouts : speak in very loud voice

weep : cry quietly

1. 마이클 잭슨의 팬들이 열광적으로 외쳤겠지요? 이럴땐 scream을 써야 하지요. cry는 "도와달라고 소리치다" 또는 "아이들이 소리 내어 울다"의 뜻입니다. When they saw Michael Jackson, they got excited and began to scream.

2. 사고를 당한 사람이 외치는 외마디 짧은 비명을 지르는 것을 cry out 이라고 하지요. When the medics tried to move Sgt. Kim, he cried out in pain.

3. 즐거워서 또는 두려움에 지속적으로 비명을 지르는 것을 scream 이라 합니다. 어린 여학생들이 그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이 나올 때 지르는 소리를 scream 이라고 하지요. Michael Jordan's fans didn't stop screaming until he left the court.

4. 우리나라 여자들은 화날 때 종종 울지만 특히 미국여자들은 화날 때 잘 울지 않고 소리를 지릅니다. Surprisingly, though she was angry, she didn't shouts.

5. weep은 슬픔에 소리죽여 울다 의 의미입니다. 한편 cry는 특히 아이들이 아파서 울다입니다. When my kid sister fell down, she began to cry .

6. 어순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말에도 "오누이"라 하고 하지 "누오이"라고는 하지않지요?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laugh or cry'라고 합니다. In this situation, I really don't know whether to laugh or cry.

7. 혹시 배고플 때 흐느끼는 애기들이 있나요? As you know when babies are hungry they always cry.

8. The Union members shouted "We need more money"

■ 카투사 기고문

부 가 티

- 가장 크고 가장 빠르며 가장 사치스러운 극단적인 매력

최근 폴크스바겐 산하에 있는 부가티가 1천1마력 짜리 수퍼카를 곧 출시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차 명은 베이론 16.4 (Veyron 16.4). 1939년 르망 24시간 경주에서 부가티 타입 57을 몰고 우승한 드라이버 피에르 베이롱의 이름을 단 새 수퍼카는 8.0리터 W16 엔진을 얹고 최고 속도는 406Km/h, 정지에서 시속 100Km/h 도달 시간이 2.5초에 불과하다. 가격은 124

제공사진

부카티 베이론 16.4의 모습.

만 달러에 달해 일반 도로 주행용 모델로는 세계에서 가장 출력이 세고 빠르며 비싼 모델이 될 전망이다.

최근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사이에서 벌어지는 최고급 모델 경쟁에 대중차로 유명한 폴크스바겐이 가세하면서 기존 폴크스바겐, 아우디 브랜드 보다도 더 비싼 차를 만들고자 98년 부가티의 상표권을 사들였다. 폴크스바겐이 세계 최고의 수퍼카를 위한 브랜드로서 마련한 부가티의 역사, 주요 차종에 대해 살펴본다.

부가티는 이탈리아 브레시아에서 1881년 태어났다. 아버지 카를로는 유명한 아르누보양식의 가구와 보석 디자이너였고, 동생인 렘브란트는 조각가였다. 이런 예술가 집안에서 성장한 에토레 부가티는 어느 자동차 설계자보다도 예술적인 감각을 지닌 설계자가 될 수 있었다. 드 디트리히, 마티스 등의 주문을 받아서 자동차를 설계하다가 1909년 독일(현 프랑스령) 알자스에 있는 몰샤임에 부가티 회사를 차리게 된다.

이 곳에서 부가티는 타입 13 경주용차를 생산한다. 1.4리터 30마력 엔진으로 1911년 르망에서 열린 프랑스 그랑프리에서 2위를 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이후 1차대전이 터져 에토레 부가티는 밀라노, 파리 등지에서 머문다. 1910년대 초에 부가티는 소형차를 설계해 히트를 치기도 하는데, 푸조 상표로 팔린 타입 19 BeBe이다.

1차 대전 이후 알자스가 프랑스 땅이 되면서 에토레 부가티는 국적을 프랑스로 바꾼다. 1921년에 타입 13 경주차는 브레시아 그랑프리에서 1,2,3,4위를 휩쓴다. 이를 기념하여 타입 13 경주차에 브레시아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으며, 타입 13을 변형해서 만든 타입 22, 23에도 브레시아라는 이름이 붙었다.

1922년 직렬 8기통 2.0리터의 타입 30이 등장한다. 타입 30은 부가티 8기통차의 시초가 된 모델로 이후 이를 변형하여 다양한 모델이 등장한다. 타입 30을 기반으로 당시 자동차로는 독특한 모양인 유선형의 타입 32가 프랑스 그랑프리에 등장하기도 한다. 타입 30은 고급 승용차로서 잘 팔리는 모델이었다. 23년에서 26년 사이에 600대가 팔렸다.

1924년 부가티의 가장 유명한 경주차인 타입 35 Pur Sang(종마, Thoroughbred)이 프랑스 그랑프리에 등장한다. 부가티는 특히 모터스포츠에 뛰어났는데, 이런 부가티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지대한 공을 한 차가 타입 35이다. 이 차는 총 2000회 이상 경주에서 우승하였고, 1926년 그랑프리 챔피언에 등극하였다. 1925년 부터 1929년까지 연속으로 타르가 플로리오 내구 레이스에서 우승하였다.

부가티는 이렇게 가볍고 빠른 경주차와 스포츠카를 일련의 공유 플랫폼으로 제조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내놓아 성공하였으나 이후 뛰어든 대형차 시장에서는 성공하지 못한다. 에토레 부가티의

제공사진

부가티 베이론 16.4의 앞모습.

가장 큰 실책이 되어버린 명작 타입 41 르와이얄(La Royale)은 1929년 등장하였다. 1925년에서 30년 사이 부가티의 판매는 최고였고, 레이스의 성공은 눈부셨다. 이 때 에토레 부가티는 그가 꿈꿔왔던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기로 한다. 부가티 르와이얄은 지금까지 등장한 자동차 중 가장 고급스럽고, 아름다우며, 자동차 역사상 가장 큰 엔진(12.8리터)을 단 가장 긴 승용차(6.7m, 차체마다 다름)이다. 이 차의 스포츠쿠페 버전은 90년 1500만 달러에 팔려 가장 비싼 자동차로 기네스 북에 올라있다고 한다. 이런 엄청난 고급차이다보니 대공황이 시작된 1929년에 아무도 살 사람이 없었다. 부가티는 르와이얄을 총 6대 만들었으나 1932년까지 한 대도 팔리지 않았고, 나중에서야 세 대만이 팔렸다. 기업 운영면에서 이는 재앙이었고, 부가티는 이 차의 12.8리터 엔진을 프랑스 국철의 고속 열차용 엔진으로 136기 납품하였다. 현재 6대의 르와이얄은 모두 남아있다. 2대는 프랑스 뮐루즈의 박물관에 세 대는 미국(그 중 한 대는 헨리 포드 박물관에 있다)에 한 대는 일본에 있다.

제공사진

부가티 타입 35 Pur Sang

부가티 타입 57 역시 스포츠카로서 무척 유명하다. 에토레 부가티의 아들 장 부가티가 설계, 디자인 한 모델로 1934년에 등장했다. 3.3리터 트윈캠 엔진을 얹었고, 오리지널 버전은 135마력에 최고 속도는 153Km/h였다. 1940년까지 생산되었으며, 다양한 버전이 나왔다. 오리지널 버전보다 낮은 차체를 지닌 57S, 수퍼차저를 단 모델도 있었다. 수퍼차저를 단 모델은 175마력, 200마력의 힘을 냈다. 경주차인 타입 57C 탱크는 4.7리터 엔진을 얹고 36년 프랑스 그랑프리, 37년 르망 24시간 경주에서 우승하였다. 부가티 차 중 가장 유명한 차 중의 하나인 부가티 타입 57 아틀란틱은 2차대전 전의 자동차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다른 경주용 버전 57S 탱크는 39년 르망 24시간 경주에서 피에르 베이롱의 운전으로 우승했다. 이 차를 테스트하다가 에토레의 아들 장 부가티는 39년 사고로 숨졌다.

2차 대전 중 에토레 부가티는 파리의 공장에서 자동차를 개발하기도 하다가 1947년 죽었다. 2차 대전 후 부가티사는 새 모델을 내놓기도 했으나 이렇다할 성공을 거두지 못한 채 63년에 이스파노 수이자에 팔리고, 나중에는 프랑스 국영 항공기 제작사인 SNECMA로 흡수되었다. 90년대 초 이탈리아의사업가가 부가티사의 상표로 차를 개발했으나 실패하고 폴크스바겐이 상표권을 사들여 과거의 명차를 현재에 되살리게 되었다.

자동차 공업이 20세기를 대표한 산업이 된 것은 포드와 같은 대량생산방식의 공이 크고, 부가티와 같은 소량 생산 메이커는 전체 산업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 흔히 굴러다니는 자동차가 극단적인 매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부가티가 아닐까. 그래서 많은 자동차 애호가들이 부가티에 매력을 느끼고 열광하는지도 모른다. ■

회계감사과 상병 문제필

MOVIE

가문의 위기

감독: 정용기

주연: 신현준, 김원희, 탁재훈

최고 명문家 백호파의 대모 홍덕자 여사! 조직은 조직대로 무럭무럭 크고, 슬하의 세 아들은 나름대로 믿음직하다. 그러나 반드시 이룩해야 할 단 하나의 과제가 남아 있었으니, 가문의 체질개선을 위한 '엘리트 며느리' 모시기! '홍여사'는 세 아들에게 자신의 환갑잔치 때까지 무조건 큰 며느리감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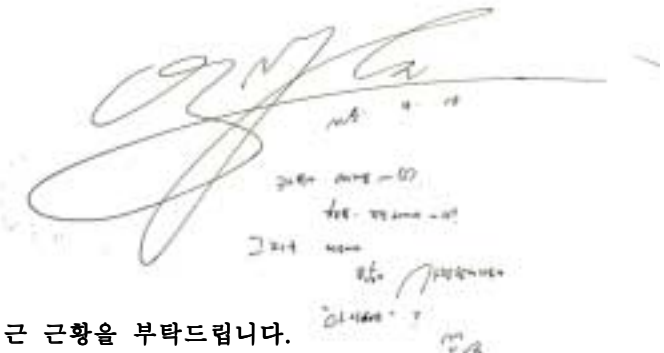
TOP CHARTS

Bump

M(민우)

2. 거울/신혜성
3. 지지 않는 태양/장우혁
4. Never Again/SS501
5. Moto/BoA
6. 사랑스러워/김종국
7. I Love U Oh Thank U/MC 몽
8. 세글자/M TO M
9. 부메랑/천상지희
10. 아니/거미
11. 내마음의 보석상자/SG워너비
12. Jump/하하
13. 으라차차/럼블피쉬

이재은



얼마전에 "아시나요" 라는 노래로 싱글 1 집 앨범을 내고 연기자에서 성인가요 가수로 변신을 한 이재은씨를 만나 보았다. 브라운관과 무대를 종횡무진하는 그녀의 다재다능함과 정열적인 모습 속에서 진정한 프로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녀의 꾸준한 활약을 기대해 본다. 또한, 상당히 바쁜 와중에도 기자의 인터뷰에 친절히 답해준 이재은씨에게도 감사드린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최근 근황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아시나요" 라는 성인가요로 싱글 1집을 내고 활동을 시작한 이재은이라고 합니다. 요새 정말 많이 바쁩니다. 특히 연기자로 활동할 때와는 다르게 공연 스케에 따라 이동하는 시간도 많고 이동거리도 길어서 약간 힘든 점도 있답니다.

그리고 아직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지 한달 정도 밖에 되지는 않아서 얼떨떨 할 때도 있고 실수를 할때도 있긴 하지만, 매우 기분 좋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 본격적으로 성인가요 가수로서 활동하시면서 느끼시는 점

정말 가수는 아무나 하는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대에서 관객에게 보여지는 시간은 단 3분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그 3분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노력해야 하고 음향, 악단, 조명등…여러 분들과 호흡을 맞춰야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서 이제는 모든 가수분들이 존경스럽게까지 느껴진답니다.

-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며 팬들에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연기자, 가수 중에 가장 매력을 느끼시는 분야는?

다 좋아요.(웃음) 각 분야마다 특성이 있고, 느끼는 매력도 다르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습니다. 드라마는 시청자들을 제 배역에 몰입시키고 감정이입 시킬 수 있는 매력이 있는 반면에 가수는 직접 관객들과 눈을 마주치며 공연을 하며, 열기를 느낄 수 있는 매력이 있는거 같습니다.

- 바쁜 스케쥴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거 같은데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정말이지 스트레스를 받을 시간도 없고, 스트레스를 부릴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열심히 활동하고픈 마음 뿐이랍니다.

- 카투사 하면 떠오르는 것

우선 카투사하면 일반 군인과는 이미지가 많이 다른거 같습니다.

제 친구중에도 카투사가 있어서 면회도 가고 막사에도 잠깐 방문을 한 일이 있는데, 충분한 개인공간과 취미생활도 즐길수 있는 자율적인 모습이 참 보기 좋았던거 같습니다. 그래도 일하거나 훈련 받으실때는 또 열심히 하시는 모습도 참 보기 좋은것 같습니다.

- 카투사들에게 한마디?

제 노래 "아시나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몸 건강히 지내시고 전역 후에 사회에서도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카투사 신문 김준식, 심영식